

목포 인권조례 폐지 요구에 뒤늦게 시끌

일부 기독교계 중심 “동성애 조장 우려” 폐지 청구 시민단체는 “존치” 주장... 시의회 논의 일단 보류

목포시와 시의회가 ‘동성애’ 조례 폐지 논란으로 시끌벅적하다. 목포시가 제정한 ‘목포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목포 인권조례)를 놓고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폐지를 청구하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시의회는 관련 조례 폐지 여부를 논의 하려다 찬반측으로 나뉜 시민들이 풀려 들면서 일단 보류했다.

일부 개신교 단체를 중심으로 충남 지역에서 시작된 관련 조례 폐지 운동이 전남에서도 시작됐다는 게 목포시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나주·보성·완도 등에서도 비슷한 폐지 청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시의 인권 조례가 왜곡된 성(性) 정체성을 가진 이들을 옹호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특정인이 1만 66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6월 ‘주민발의 조례 폐지 청구’가 접수됐다는 것이다.

개인 명의로 이뤄진 ‘조례 폐지 청구’

지만 개신교 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목포시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이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법(2조 3)에 명시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포함된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가 동성애 옹호 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관련 조례가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전국에서 제정됐음에도 5년이 지난 뒤 폐지청구가 제기된다는 일부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충남도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조례 폐지 청구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충남에서는 최근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제정된 지 5년이 된 관련 조례 폐지를 청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인권조례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들의 조례 폐지 청구에 따



목포 시민연대 등 30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6일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목포시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라 지난 16일 기획복지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논의했으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조례 제정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목포를 비롯한 전국 지역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에는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가 없는 점 등도 감안됐다.

당시 시의회에서는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쪽과 ‘인권조례는 존속돼야 한다’는

목포 시민연대 등 30개 시민단체 등이 찬반 의견을 내세우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목포시의회 관계자는 “인권조례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수군 문화제’ 목포 대표축제로 키운다

목포시가 ‘수군 문화제’를 목포 대표 축제로 확대키로 해 주목된다.

20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지역 공약 ‘이순신 호국 관광벨트 조성’에 따라 목포 이순신 수군문화제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정 ‘목포 통제영 축제’를 추진키로 했다.

지난 4월 열린 ‘수군 문화제’를 확대한 것으로, 고하도 통제영을 복원하고 이순신 통제영 춘추 수조식, 숙박식 재현 등 프로그램을 개발해 축제 볼거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목포 역사, 목포진, 고하도 통제영, 목포진지록 등 이순신 관련 유적을 발굴하고 지역 관광자원인 목포 해상케이블카, 목화 시배지, 노적봉 스토리 등

과 연결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개발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복안이다.

고증을 바탕으로 조선 수군과 현대 해군을 구분하는 복장을 입은 수군들이 기(旗)·창(槍)·칼(劍)·군마 등 소품을 이용해 퍼레이드를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목포시는 통영 한산도 축제의 ‘한산대첩’, 여수 진남 거북선축제의 ‘거북선’, 목포 수군문화제의 ‘고하도 통제영’ 등으로 차별성을 갖춘다면 축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박홍률 시장은 “목포 수군문화제에 대한 3단계(2018년~2020년) 발전 방안을 마련, 한국 3대 이순신 축제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지난 4월 이 충무공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처음 열린 수군문화제. 수군문화제의 하이라이트인 ‘개성장군 수군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다.

목포시, 지역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맞춤형 지원

목포시가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목포시는 20일 대학 재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학 맞춤형 현장 실습과 취업 아카데미 등에 대한 지원사

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목포대를 비롯해 목포해양대, 세한대, 초당대, 가톨릭대, 목과대, 목포 폴리텍 V 대학 등 7개 대학으로, 대학별로 3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들 대학들은 관련 예산을 ▲현장실습 프로그램 ▲취업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취업의지 향상 프로그램 ▲취업 아카데미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대학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취업정보 제공을 비롯, 물론 직무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원 사

업이 대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목포시는 예상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여수시는 최근 열린 ‘제 10회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대한민국소셜미디어 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2년연속 ‘인터넷소통대상’ 종합대상

여수시가 2년 연속으로 ‘2017년 대한민국 인터넷소통대상’ 공공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 10회 대한민국 인터넷소통대상·대한민국소셜미디어 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여수시는 SNS 콘텐츠에 대한 고객의 높은 이용도와 반응도, 고객이 공감하는 콘텐츠 제공, 영상 콘텐츠에 대한 높은 호응도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여수시는 지난 2014년부터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등 다양한 소통에 힘써 왔다.

특히 여수시의 공식 SNS ‘여수이야기’는 시민들과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함

게 만들어가는 창구로 호응을 얻고 있다.

‘여수이야기’에서 운영하는 ‘도란도란 소통방’과 관광 SNS ‘힐링! 여수야’는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과 차별화된 관광 정보 제공이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에도 ‘제 6회 대한민국 SNS 대상’ 공공부문 최우수상, ‘제 9회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대한민국소셜미디어 대상’ 공공부문 소셜미디어 대상·디지털콘텐츠 대상을 수상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SNS 외에도 ‘100인 시민위원회’,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공감투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시민들과 긴장성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LG화학 여수공장, 어르신 상안검하수 수술 지원 눈길

LG화학 여수공장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 활동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LG화학 여수공장에 따르면 눈꺼풀 처짐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노인들을 위해 ‘상안검하수 회복 수술’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상안검하수’는 노화로 눈꺼풀이 처지고 시야가 가려진 상태로 눈을 뜨기가 불편한 증상으로 시력을 저하해 보행에 어려움을 주는 질환이다.

많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상안검하수 증상을 겪고 있지만 보통 100만원 정도에 달하는 수술비 부담 때문에 저소득층 노인에게 수술은 엄두도 내기 힘든 실정이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이같은 점을 감안, 지난 2012년 대표적 지역사회공헌 프로그



램으로 진행해 200여명의 노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또 수술을 받은 60여명의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명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사진 촬영행사’도 벌였고 선상 크루즈로 여수 경관을 둘러보는 나들이 행사(사진)도 진행했다.

민경호 LG화학 여수공장 상무는 “지역 대표 기업으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나눔 지원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

부동산 투자 ! 최 선 규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오천경매 H. 010-3605-5000